

규제를 규제해라



김승호의
시선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99%를 차지한다. 절대 다수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 중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정권은 하나도 없다. 대못을 뽑겠다, 전봇대를 옮기겠다, 가시를 제거하겠다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장관급인 국무조정실 산하의 규제조정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ombudsman 등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개혁은 민관이 한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어젠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중순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를 혁파해야한다고 소리쳤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90%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10%가 입법사항인데 이 중 노동분야의 경우 99%가 입법이 필요해 (규제개혁을 위해선) 정부, 기업, 국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사견으로는 58%도 후하게 준 점수다.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보다 더 많은 규제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국회 의원님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 일삼고 있는 지금의 국회 모습만 보더라도 이번 21대 역시 별볼일 없이 막을 내릴 것이 뻔하다.

규제개혁 목소리가 높은 곳이 또 벤처업계다.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기존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리걸테크(LegalTech·법률+기술) 등의 분야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의사,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과 신산업의 충돌, '다

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참여자간 접해 한 대립이 그것이다.

한쪽은 규제를 없애달라고 아우성이다. 한쪽은 더 규제를 해달라고 난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개혁의 방향은 국민 대다수의 편에 무게중심을 뒀야 한다. 소수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들 이유가 없다.

성상업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8월 말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3 벤처썸머포럼'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미미하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기존 직업단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과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사전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처럼 높지만 늘 결과는 시들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단절'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수인계되는 것이 바로 '규제'다. 마치 이 정권에서 규제를 다 없애면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 없어 '배려'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아함이 들 정도다.

/bada@metroseoul.co.kr

'135일의 기적' 포스코... 상생협력 필요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135일의 기적' '민·관·군 140만여명의 헌신'

포스코는 1970년 첫 삼을 뜬 후 3년 3개월 만인 1973년 종합제철 공장이 준공된 이후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산업의 쌀' 공급처 역할을하며 제조업 도약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위기를 맞으면 소속원들은 물론 민·관·군이 적극 지원에 나서며 지켜온 기업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불려온 초대형 재난에도 모두가 지켜내겠다는 신념 하나로 '꺼지지 않는 신화'를 이어왔다.

당시 포항제철소 현장 관계자는 "공장 대부분이 침수되고 전기도 끊겨 참담했으며 당시 가장 그리웠던 건 설비 가동 소리였다"며 "회사 안팎 많은 분들의 지원 덕에 위

기를 극복했고 앞으로 양질의 제품을 차질 없게 공급해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위기를 이겨낸 포스코는 임단협 갈등으로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달 23일 20차 교섭 이후 28일 만인 지난 21일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임금 인상 15만원(공통인상물 8만원 포함)',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제채용 확대)', '주식 400만원 한도내에서 일대일 매칭 지급', '구내식당 음식 무료 제공', '격주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으로 회사의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사측의 추가 협상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앞서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하계휴가 및 휴가

비 신설 등과 괴리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포스코 노조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것은 직원과 임원의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가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3% 인상된 약 24억원을 기록했다. 또 유병욱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은 9억1200만원을 받았으며,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13억2900만원, 이시우 포스코 사장은 9억5900만원을 받았다.

반면 포스코 직원들은 같은 기간 평균 급여가 5200만원으로 지난해 4950만원(환산액)에 비해 5.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측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로 인해 상반기 실적 감소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위기로도 노사가 함께 지켜온 회사지만 임단협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포스코는 물론 대한민국 산업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ysw@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이후에 한 장 기적의 두뇌비틀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지 | 스토쿠365 | 10,000원

문제가방번호: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 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소수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5
	6			9	
	9 5			2 3	
9		6	8		3
		4			
4		3	5		8
	2 7			5 4	
	9			7	
5		2	6		9

		9 8 6			
	1				6
	6			7	
2		5	8		4
5		1			3
8		2	3		1
	5			8	
7				3	
		4 5 1			

정답

6	8	9	2	7	1	9		
1	2	7	8	9	6	5	9	
9	7	5	6	8	1	2	3	8
8	2	1	9	6	8	2	9	7
2	6	9	1	7	2	8	9	5
9	5	7	8	2	9	1	2	6
7	8	2	9	8	9	6	1	
2	1	6	8	9	7	9	8	2
9	9	8	2	1	6	8	7	2

2	2	6	1	9	7	8	9	9
9	8	1	6	9	8	2	2	7
9	7	8	2	2	8	9	6	1
1	6	9	8	7	2	9	8	9
8	9	2	2	1	9	6	7	9
7	2	9	8	6	9	1	8	2
8	9	2	7	8	1	9	2	6
6	9	7	9	2	2	8	1	8
2	1	8	9	8	6	7	9	2

고난도의 월드컵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9월 25일 (음 8월 11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안먹는다. 48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틀리니 다시 노력을. 60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72년생 오늘에 화장이 진해도 길하다. 84년생 인생은 오월동주(吳越同舟)이다.

 소
37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49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하는 것이. 61년생 힘든 일은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 73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아름답다. 85년생 인생의 즐거움은 다양하게 있다.

 호랑이
38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많지만 극복된다. 50년생 권불심년이라 하지 않았던가. 62년생 소중할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는 고통이 될 수. 74년생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얼 것을 준비. 86년생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토끼
39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뜻을 세우보자. 51년생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63년생 가까운 것을 천하게 생각하고 먼 데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75년생 어제 본 사람에게 관심이 온다. 8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운전 조심하.

 호랑이
40년생 신념이 있으면 귀신도 이를 피하여 해하지 않는다. 52년생 운수가 궁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되니 상담을 해보라. 64년생 협업이 서로이익. 76년생 망하는 신이 주신 선물이니 잊을 것은 잊어라. 88년생 눈앞보다 내일을 준비.

 뱀
41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53년생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운 좋은 날. 65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오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77년생 이 또한 지나가리니 오늘은 참고 견뎌라. 89년생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말
42년생 사람이 모이면 흠뻑지도 일어나다. 54년생 지금이라도 고정관념에서 변화를 찾아보자. 66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78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노를 힘껏 저어라. 90년생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호랑이
43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시면 발걸음이 가볍다. 55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 67년생 자기 일어나도 피곤하니 좀 쉬어야. 79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 91년생 상대가 변하기보다는 내가 변해야 발전.

 원숭이
4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않겠는 금물. 56년생 큰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된다. 68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 돌 곳을 모르겠다. 80년생 호감이 가는 여성이 유혹하니 중심을 잘 잡자. 92년생 조연은 변화의 예언자가 아닐까.

 닭
45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57년생 아랫사람과 의견충돌을 조심. 69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81년생 이직보다는 직장에 충실. 93년생 잘못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돼지
46년생 지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내도록. 58년생 현상 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70년생 지나간 실패는 빨리 잊고 새 출발. 82년생 어떤 상황에도 가족과의 약속은 지켜야 미래가 보장. 94년생 봄기운처럼 살려는 하루.

 돼지
47년생 시기질투를 두려워할 것 없다. 59년생 오늘일은 오늘 마무리하고 기술을 배우자. 71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83년생 과속은 금물이니 양보하라. 95년생 잘못은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



김상회의四季

출입구와 재물

돈이 대세인 시대 부자가 되려면 운세를 잘 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다. 큰 부자가 아니라 작은 부자만 돼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 작은 부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대략 두 가지로 볼 때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모은 돈이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이때 풍수에서는 재물과 연관해서 현관이나 출입구를 중하게 여긴다. 재물을 부르는 기운과 새나가는 기운이 문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물을 불러들이려면 무엇보다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

어두운 분위기는 재물의 기운이 응집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현관을 밝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안으로 들어서려고 문을 여는데 현관에서 듣기 싫은 삐걱 소리가 난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틀이 맞지 않아서 열거나 닫을 때 불편한 문도 마찬가지로 문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현관을 말끔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되돌아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풍수에서는 여러 요소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문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답은 없다.

건물 전체의 크기 그리고 건물 내부와 비교해서 조화를 이루면 된다. 자영업 사무실도 다르지 않다. 현관이 드나들기 편하고 깔끔하고 분위기가 밝아야 재물이 흘러들어 온다. 사무실 현관을 열었을 때 창문이 바로 보인다면 그리 좋지 않다. 들어온 재물이 머물지 않고 창문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다. 창문들이 잘 맞지 않아 틈이 생겼다면 그것도 재물이 새 나가는 구멍이 될 수 있다. 현관 출입구 근처에 배수구가 있어도 좋은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런 경우에는 배수구 위에 화분을 놓는 것도 방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8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